이시우 박사가 쓰는

불교와 우주 ㉘

우주 그물망과 법계

우주 · 인간 그물망 유기적 역동

불안정 · 혼돈 내재
조용한 듯하나 늘 새모습
불법도 항상 새롭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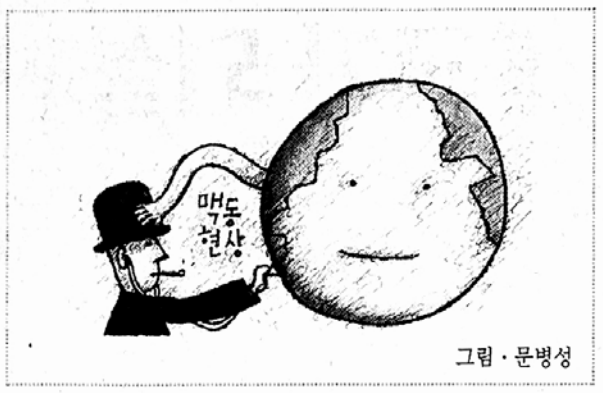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별과 별 사이에는 중력이란 힘의 고리가 연결되어 거대한 그물망을 이루고 있으며 별들은 그물망의 연결 매듭에 놓여 있다. 각 별은 사방에 흩어진 다른 별들과 중력적 고리에 연결되어 공간적으로 3차원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보면 별들은 각기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물망의 구조와 형태는 시간에 따라 변하므로 중력적 그물망은 4차원적 구조를 가진다. 한편 은하와 은하들 사이에도 인력을 미치는 중력적 고리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은하들로 이루어진 우주는 거대한 4차원적 그물망으로 이루어져 있는 셈이다. 이러한 그물망의 매듭에 놓여있는 은하들은 별들의 운행과 진화에 따른 국부적인 안정과 불안정에 의해 그물망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난다. 이와 같은 우주적 그물망은 시간과 공간을 정의하며 그리고 그물망의 진화는 이들에 의해 규정되어진다.

한편 인간 세계에서도 인연이란 고리로 이루어진 그물망이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가족이란 그물망이 존재하고, 이것을 토대로 사회적 그물망이 생기며, 이것은 다시 국가적 그물망으로 확장되면서 지구 전체에 걸친 인간 세계의 그물망을 형성하여 자연과 대립하고 있다. 자연에 존재하는 무기적 존재들은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음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그물망을 이루고, 식물과 동물은 유기적 생명유지를 위한 단순하고 보편적인 그물망을 이루고 있다. 별들의 세계와 달리 지상에 존재하는 그물망은 존재양식과 진화 방법에 따라 복잡한 그물망을 형성하는 것 같지만, 우주적 시공간의 척도로 보면 시간 축에 따라 진행해 나가는 지상의 그물망의 변화는 무시될 정도로 미약하며 전체적으론 별들의 그물망이나 우주적 그물망의 기본적 구조를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우주 그물망이 곧 법계이며, 우리는 이러한 법계의 불법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는 2500여 년 전에 알고 있던 세계와는 전연 다른 세계이다. 이에 따라 인간들 사이에 맺어진 그물망도 옛날의 것과는 매우 달라졌다. 그러나 그 동안에 인간이란 본질이 바뀌지지 않았고, 또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이 근본적으로 바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물망의 근본 구조에는 큰 변화가 없다. 즉 그물망의 매듭에 걸려있는 인간들이 양식을 구해서 먹고 살아가는 형태와 생각은 변화되어 왔지만, 먹어야 산다는 근본은 바뀌지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의 삶은 먼 옛날과 달리 냉혹한 경쟁 사회에서 일어나는 불안과 혼돈의 상태가 더욱 빈번히 닥치며 또 그 규모도 커졌기 때문에 불안이 더욱 증폭되면서 삶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우주적인 그물망인 법계의 불법을 따르고 있지만 이 그물망을 더욱 국지화시켜 인간의 그물망으로 좁혀 들어오면, 각 그물망에 걸려있는 인간들의 인연 고리가 먼 옛날과는 달리 심하게 꼬이고 뒤틀려져 있으며, 또 인연의 고리를 너무 강하게 끌어당겨 오히려 인연의 고리가 끊어지기도 하는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생명체의 탄생이란 무엇인가? 유형의 탄생이 진화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유형이 무형으로 진행해 가는 불안정 상태를 나타낸다. 즉 생(生)이란 불안정과 혼돈의 연속적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올바른 생의 이해는 안정성보다는 불안정과 혼돈의 올바른 이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별의 진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수축, 팽창의 맥동현상이다. 여러 종류의 별들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맥동현상을 자세히 관찰함으로써 별의 내부구조와 진화상태를 이해하게 된다. 이처럼 불안정이나 혼돈의 이해는 곧 안정의 이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인간의 그물망이나 우주의 그물망에서도 불안정과 혼돈의 이해가 더욱 중요하다. 왜냐하면 생주이멸이 자연현상이며 이것은 불안정과 안정이 서로를 합축하면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올바른 불법의 이해도 불안정과 혼돈의 이해, 자아보다 타자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즐거움과 행복추구에 앞서 고뇌와 불행의 올바른 이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12연기에서 고(苦)가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우주 그물망이나 인간 세계의 그물망은 고립된 정지 상태가 아니라, 상호간에 유기적이며 역동적인 것으로 국지적으로는 항상 불안정과 혼돈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조용해 보이는 듯한 그물망이 언제나 새로운 형태로 변해가고 있다. 그러므로 불법도 완전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주적 그물망의 변화에 따라 초월 상태로 바뀌어가면서 새로운 법계로 계속 태어난다. 이것이 곧 제행무상으로 만유의 유전변천의 섭리이다.

▨전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선생님 존경한다" 39%

심각한 교권추락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두 가지 통계가 발표됐다. 먼저 한 대학교수가 최근 초 · 중 · 고생 254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선생님을 존경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39%였으며, '그저 그렇다'가 37%, '존경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추락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서울협의회가 서울지역 중 · 고교 생활지도부 교사 474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에 의한 피해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아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응답자의 26.7%가 '욕설 등 폭언을 들었다'고 답했고, '폭행하겠다는 위협성 발언을 들었봤다'는 교사도 17.8%나 됐다. 또 '교내에 세워둔 자동차나 집기가 학생들에 의해 파손된 적이 있다'는 교사는 40.7%나 됐고, '학교 홈페이지에 인신공격성 글을 올려 피해를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3%에 달했다. 특히 '학생들로부터 신체적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3.8%나 됐다.

이쯤 되면 스승도, 제자도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중요한 것은 교권추락이 곧 교육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스승을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지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자.

▧제자가 스승을 섬김에는 마땅히 다섯 가지 일을 행해야 한다. 첫째는 공경해 존중함이요, 둘째는 은혜를 생각해 잊지 않음이요, 셋째는 가르침을 받은 것을 따름이요, 넷째는 싫증내지 않음이요, 다섯 째는 그 덕을 찬탄함이다.

〈육방예경〉

▧제자는 스승을 없신여기는 마음을 내서는 안된다. 마치 막 시집간 새댁이 시부모를 섬기듯, 응당 부끄러움을 지녀 그 가르침을 받들어야 한다. 〈해탈도론〉

禪과 21세기

'임제록' 통한 선 공부 ⑪

오직 하나일 뿐

경계 허망한 것 … 진실한 실재는 마음

마음은 모양이 없어서 온 우주를 관통하니, 눈에서는 본다 하고, 귀에서는 듣는다 하며, 코에서는 냄새 맡는다 하고, 입에서는 말한다 하며, 손에서는 쥔다 하고, 발에서는 걷는다 한다. 본래 한 개의 깨끗하고 밝은 것이 나누어져 18계의 경험세계를 이루므로, 하나의 마음도 이미 없다면 이르는 곳마다 모두 해탈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대들이 항상 치달려 구하는 마음을 쉬지 못하고 저 옛 사람의 부질없는 인연과 경계를 숭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나의 견처에서는 보신불과 화신불의 머리를 자르며, 십지보살은 천박한 놈과 같고, 등각보살과 묘각보살도 족쇄 찬 놈이며, 아라한과 벽지불은 변소 간의 똥과 같고, 깨달음과 열반은 나귀 매는 말뚝과 같다. 어지하여 이와 같은가? 그대들이 3아승지 겁 동안 공(空)에 통달치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가 있는 것이다. 만약 참된 도인이라면 결코 이와 같지 않아서, 인연 따라 오래된 업을 녹여 없애고 자재하게 옷을 입으며, 가고자 하면 가고, 앉고자 하면 앉을 뿐 한 생각이라도 부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다. 왜 그러한가? 옛 사람이 말하기를, "만약 업을 지어서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부처가 바로 삶과 죽음의 큰 조짐이다"고 하였다.

오직 이 한 개 마음이 있을 뿐, 달리 아무 것도 없다. 눈앞에 나타나는 모든 경계는 이 마음이 나타내는 변화일 뿐, 다른 어떤 것도 없다. 이 한 개 마음은 이름만 있고 정해진 모양이 없으니 마음이라는 이름은 허망한 것이다. 마음에 정해진 모양은 없으나 모든 인연법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마음이 허망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유일하게 진실한 실재는 마음뿐이다.

우리가 무엇을 파악하고 알아차리는 방법은 눈으로 색깔과 모양을 보거나 귀로 소리를 듣거나 코로 냄새를 맡거나 혀로 맛을 보거나 피부로 감촉하거나 감각과 관념과 욕망을 의식하거나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알아차리는 것들은 전부 서로서로 구별되는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각각 다른 이름이 붙어 있다. 우리의 경험을 이루는 것은 모두 이러한 이름과 모양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이름과 모양을 가장 실재적이라 여기고, 이름과 모양을 벗어난 그 무엇을 말하면 그것은 관념적이고 허망한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름과 모양이야말로 이름 없고 모양 없는 것의 활동으로 매 순간 순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서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늘 변화의 와중에 있는 유동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바로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름과 모양의 경계는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유동적인 것으로서, 이렇게 이름과 모양을 만들어내는 활동이 없다면 이름과 모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오직 실재적인 것은 이 활동뿐이고, 이 활동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는 이름과 모양은 비실재적인 것이다. 이것은 마치 물과 물결의 관계와 같다. 물결은 오직 물의 움직임일 뿐이고 달리 어떤 존재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물결을 본다. 물결들은 다양한 모양을 따라 구분되고 이름 붙여진다. 그러나 물결은 물의 움직임일 뿐으로서 허망한 것이다. 실재를 알려면 물결이 아니라 물을 알아야 하듯이, 공부인은 이름과 모양으로 구분되는 경계가 아니라, 지금 바로 그러한 경계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 움직임을 알아야 한다.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
http://www.mindfree.net/

영어로 배우는 불교용어

연등축제 Lotus Lantern Festival

Every year there are many small local parades of lantern to celebrate the Buddha's Birthday in May. As the birthday of Buddha(on the 8th day of the 4th lunar month every year) approaches, temples in each district combine their efforts to organize the annual lantern parade. Buddhists march through the streets with their lantems in hand. The standard lantern would be shaped like a lotus flower, but Buddhists also making the 'Soccer Ball Lantern' to commemorate the 2002 FIFA World Cup.

해마다 5월이면 각 지역별로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등축제가 열린다. 부처님의 탄신일(매년 음력 4월 8일)이 다가옴에 따라 사찰들은 매년 각 지역별로 역량을 모아 등축제를 준비한다. 불자들은 손에 등을 들고 거리 행진을 한다. 전통적인 등은 연꽃모양이지만 2002년 월드컵을 맞아 '축구공 등'을 만들기도 했다.

The lotus, a common symbol in Buddhism, represents the process of shedding ignorance to attain wisdom.

연꽃은 무지를 벗고 지혜를 얻는 과정을 상징하는 일반적인 불교의 상징물이다.

내 한생 성불을 늦추더라도 이 생애는 포교하리라!

제33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

모시는 글

반갑습니다. 미래 불교를 위해 정진하고 계시는 지도자 여러분! 제33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속리산유스타운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수회는 기본과정은 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전문과정은 레크리에이션, 상담, 아트풍선으로 나누어 전문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입니다.

"내 한생 성불을 늦추더라도 이 생애는 포교하리라!"
불국토를 향한 초석을 다지는 불사에 지도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불기 2546년 5월 좋은날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장 정여 합장

총재 / 정관, 부총재 / 혜총, 철오, 회장 / 정여, 상임부회장 / 운성, 부회장 / 각만, 덕신, 덕진, 심산, 원행, 원혜, 인성, 지광, 지현(가나다순), 감사 / 성형, 박창식

행사개요

1. 일 시 : 불기 2546년 6월 1일(토) 오후 5시 ~ 6월 2일(일) 오후 3시
2. 장 소 : 속리산유스타운
3.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4. 주 관 :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5. 슬로건 : 내 한생 성불을 늦추더라도 이 생애는 포교하리라!
6. 예상인원 : 600여명
7. 연수참가비 :

구 분	기본과정	전문과정		비 고
		레크리에이션 상 담	아트풍선	
미리 접수	35,000원	45,000원	55,000원	· 아트풍선은 재료비 포함 · (사)한국수공예협회 풍선공예 강사 자격증 (신청을 원하는 연수생에 한함.) · 연회비 30,000원, · 자격검정비 150,000원
당일 접수	40,000원	50,000원	60,000원	
제주도, 울릉도, 군종병	20,000원	30,000원	40,000원	

※해외거주자는 무료

8. 지급품 : 연수자료집, 기념품, 여름불교학교 교재 지급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www.sesag.or.kr

9. 접수 방법
가. 접수
(1) 홈페이지 - www.sesag.or.kr에서 연수회 참가 신청서 클릭하여 접수
(2) FAX : 신청서 작성 후 FAX로 접수 (051)808-4571
(3) 연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청서를 미리 받고자 합니다.
▶본회 사무국 (051)808-4570
나. 참가비 납부
(1) 접수 후 입금
(2) 실명인 관계로 송금 후 연락바랍니다.
(3) 송금계좌 : 우체국 601310-01-002215 [예금주 : 대불어]
다. 접수마감 5월 25일 까지

10. 연수 주요 내용

구분	기본과정	전문과정		
		레크리에이션(1과정)	상 담	아트풍선
대상	연수회 2회 이내 참가자	· 연수회 3회이상 참가자 · 연수회 2회 이내 참가자 중 스님 · 대한불교교사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특전		(사)한국여가교육협회에서 1과정 수료증을 수여하며 겨울연수(2과정)시 자격검정을 거친 후 2급 자격증을 드립니다.	본회에서 드리는 상담과정 수료증을 드립니다.	본회에서 드리는 아트풍선 과정 수료증을 드립니다. (사)한국수공예협회 풍선공예 강사 자격증 지급 (원하는 연수생에 한함-연회비,자격검정비 별도)
모집인원	제한없음	100명(선착순)	20명(선착순)	70명(선착순)